

낙농 농가 정액 선호도 실태조사 Sevey on the Sire Preferences in Dairy Farm

조광현

K. H. Cho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과
ckh1219@korea.kr

여준모

J. M. Yeo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과
yeoj@korea.kr

I. 조사의 개요

젖소의 혈통등록체계가 시행된 이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개량의 성과를 이루었다. 종축을 개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축의 마리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이에 낙농가가 원하는 개량 방향에 따라 더 좋은 유방, 더 좋은 지체, 적당한 사이즈, 더 좋은 수태율, 더 긴 우군수명을 가진 개체의 생산을 통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하나같이 모두 중요하다. 이처럼 유전자원을 잘 선택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현재 경영효율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선택으로서 목장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젖소정액은 크게 국내(농협 젖소개량부)에서 생산한 정액이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정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 정액과 수입 정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과 질 부분에서 수입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액을 계속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선발기준에 종속되고 자국의 환경과 수입하는 유전자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어렵다.

본 조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낙농가의 정확한 정액 사용 실태 파악을 통해 낙농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과 졸업생들의 승계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조사의 결과는, 현재 낙농산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낙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조사의 방법

1. 설문조사 실시 방법

설문조사는 대인 면접 및 우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으며 2019년 4월 5일 ~ 2019년 10월 4일까지 6개월간 조사하였다. 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과 1, 3학년 일용직 15인을 조사자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전 설문조사 교육 및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407부가 수집되

었다.

2. 설문조사 실시 지역

설문지역은 총 8개도 53개 시에서 조사 되었으며 경기(142), 경남(23), 경북(36), 세종(4), 전남(29), 전북(57), 충남(92), 충북(17)지역에서 400건이 조사되었고 7건의 무응답 건수가 있다.

III.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분류

설문에 참여한 농가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지역이 142명(34.9%)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92명(22.6%), 전북지역 57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북지역 36명(8.8%), 경남지역 23명(5.7%), 세종시 4명(1.0%), 전남지역 29명(7.1%), 충북지역 17명(4.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및 경력 조사에 있어서는 연령은 40세 미만이 165명(40.5%), 40세~60세 미만 157명(38.6%), 60세 이상 80명(19.7%)로 조사되었다. 경력은 10년~30년 미만이 154명(37.8%), 10년 미만 128명(31.4%), 경력 30년 이상이 105명(25.8%)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설문에 참여한 농가의 사육 두수를 100두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100두 미만 224 농가(55.0%), 100두 이상 168 농가(41.3%)으로 나타났다.

2. 정액

설문에 참여농가 중 국내산 정액의 종류(1. 한국형: 후보씨수소, 보증씨수소, 2. 농협도입개체)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5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일부 알고 있다 28.5%, 모른다가 12.6%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에서 캐나다 및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생축으로 생산하는 정액이 국내산인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72.2%, 모른다가 27.8%로 나타났다(표 1).

표 1. 국내산 정액의 종류 인지 여부 및 캐나다, 미국에서 도입한 생축으로 생산하는 정액이 국내산인 것을 아는지 여부

구분		n	%
인지 여부	알고 있다	238	58.9
	모른다	51	12.6
	일부 알고 있다	115	28.5
	합계	404	100.0
	알고 있다	293	72.2
	모른다	113	27.8
	합계	406	100.0

3. 국내산 정액 신뢰도

젖소를 개량한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젖소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량의 방법으로는 우수한 부모로부터 우수한 자손이 나온다는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젖소를 유전적으로 개량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씨수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국내산 정액을 신뢰하는 농가의 비율이 75.3%로 신뢰하지 않는 농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2). 또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개량 형질부족 항목이 3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 평가결과 항목이 29.7%로 조사되었다. 국내산 정액과 수입 정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과 질 부분에서 수입이 저렴하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 수입 정액에 버금가는 우수한 정액을 생산하는 것이 국내산 정액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국내산 정액 정보 신뢰 여부

구분		n	%
신뢰여부	그렇다	296	75.3
	아니다	97	24.7
	합계	393	100.0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정액 유전능력	17	18.7
	유전 평가결과	27	29.7
	개량 형질부족	33	36.3
	기타	14	15.4
	합계	91	100.0

4. 후대검정 정액(검정농가만 해당)

후대검정이란 보증종모우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종모우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대검정농가 사업은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며 후대검정농가 사업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후대검정사업 혜택**

- ① 정액의 무상 공급
- ② 딸소 태어날 경우 혈통등록비 지원
- ③ 착유소 전체 선형심사 무상지원
- ④ 딸소 생산장려금 100,000원, 검정착수비 100,000원 지급

본 설문 조사에서 후대검정사업 혜택을 알고 있는 농가는 31.3%, 일부 내용만 아는 농가가 43.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3).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하는 이유에서 무료로 주니까의 경우 33.8%, 국가사업 이라서의 경우가 26.8%로 뒤를 이었다(표 4).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해 생산된 딸소의 능력이 우수하다 생각하는지의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다가 59.5%, 우수하다가 16.4% 그리고 관심없다의 경우가 15.1%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로 보아 후대검정사업의 홍보가 더 필요해보이며, 후대검정 정액의 사용이 무료여서 사용이 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생산된 딸소의 능력 부분에 있어 우수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후대검정사업 혜택 인지 여부

구분	n	%
알고 있다	105	31.3
일부 내용만 안다	144	43.0
전혀 모른다	86	25.7
합계	335	100.0

표 4. 후대검정 정액의 사용 이유

구분	n	%
능력이 우수해서	53	18.5
무료로 주니까	97	33.8
권유	60	20.9
국가사업이라서	77	26.8
합계	287	100.0

표 5.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해 생산된 딸소의 능력이 우수하다 생각되는지 여부

구분	n	%
우수하다	49	16.4
보통이다	178	59.5
그렇지 않다	27	9.0
관심없다(모른다)	45	15.1
합계	299	100.0

III. 총평

본 설문 조사는 한국농수산 대학 졸업생 및 1, 3학년 학생들이 조사원으로서 국내 낙농 현장의 지역, 낙농가의 연령과 경력, 사육두수 및 정액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농가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지역이 34.9%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22.6%, 전북지역 1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설문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평균 사육 두수는 100두 이하의 농가가 많았다. 국내산 정액의 종류(1. 한국형: 후보씨수소, 보증씨수소, 2. 농협도입개체)를 알고 있는 지 여부는 알고 있다가 58.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일부 알고 있다가 28.5%로 응답하였다. 또한 농협에서 캐나다 및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생축으로 생산하는 정액이 국내산인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72.2%, 모른다가 27.8%로 응답하였다. 국내산 정액을 신뢰하는 농가의 비율이 75.3%로 신뢰하지 않는 농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개량 형질부족 항목이 3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 평가결과 항목이 29.7%로 조사 되었다. 후대검정사업 혜택을 알고 있는 농가는 31.3%, 일부 내용만 아는 농가가 43.0%로 가장 많이 나타나났다.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하는 이유 항목에서 무료로 주니까의 경우 33.8%, 국가사업이라서의 경우가 26.8%로 나타났다. 후대검정 정액을 사용해 생산된 딸소의 능력이 우수하다 생각하는지의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보통이다가 59.5%, 우수하다가 16.4%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는 낙농육우협회에서 전국단위로 조사한 낙농경영실태 조사와 일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나 응답자 중 한국농수산대학 관련 농가들의 비중이 다른 설문 조사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과 졸업생들의 낙농 승계 및 창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젖소 정액 사용 실태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개선하고, 젖소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액을 공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